

“벽화골목·섬티아고...예술 섬으로 떠나요”

우리나라 섬은 유인도 472개를 포함해 3300개가 넘는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다. 삼삼한 바닷바람 속에 다양한 자태를 자랑하는 섬은 그 자체로 멋진 겨울여행 목적지다. 최근에는 섬의 역사와 특색을 살려 예술작품이나 문화유적, 조형미 넘치는 건축물로 한결 깊은 매력을 갖춘 곳들이 생겨났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11월 가을 만한 곳'의 테마는 바로 이런 '문화예술이 있는 섬'이다.



추자도, 추자10경 담은 벽화 눈길
신시모도, 바닷가에 조각품 전시
자언미 보존한 죽도서 힐링 산책

●바다를 배경삼은 포토존, 제주 추자도

추자도는 제주도서 배로 1시간 거리의 섬이다. 추자항 뒤편에는 제주의 아픈 역사가 깃든 차유의 언덕이 있다. 대서리 벽화골목에서는 추자10경을 담은 벽화를 만날 수 있다. 영흥리에도 색색의 타일로 꾸민 벽화골목이 있고, 물리고갯길에는 바다와 섬을 배경 삼은 포토존이 기다린다.



탁 트인 바닷가에 푸른 하늘을 지붕 삼아 조성해 물때와 파도에 따라 각기 다른 감성을 전해주는 인천 신시모도의 배미꾸미 조각공원, 서포 김만중이 유배 생활을 했던 남해 노도 선착장에 그의 대표작 '구운몽'의 본문 일부를 담아 만든 조형물 '서포의 책', 색색의 타일로 만든 그림으로 골목을 예쁘게 장식한 제주 추자도의 영흥리 벽화골목, 보령 죽도의 상화원을 대표하는 지붕이 있는 회랑은 섬 돌레를 따라 조성했는데 길이가 2km에 달한다. (위 사진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서포 김만중의 자취, 남해 노도

노도는 남해 상주면 벽면마을 앞의 작은 섬이다. 남해는 조선시대 유배지였는데 노도는 소설 '구운몽'으로 유명한 서포 김만중이 유배생활을 한 곳이다. 김만중은 노도 유배기간 동안 '사씨남정기'와 '서포만필' 등을 썼다. 남해군은 김만중의 유적과 이야기를 엮어 노도를 문학의 섬으로 조성했다. 김만중문학관, 서포초옥, 야외전시장, 작가창작실 등이 있다.

하늘에 섬 주민이 오가던 노두를 활용한다. 물때에 따라 하루 두 번 잠긴다. 장도에는 예술작품 외에 전시관, 전망대 등이 있는데, 그중 관람로가 예쁜 허브정원과 다도해정원이 이곳 자랑이다.

길'은 예배당을 돌아보며 총 12km를 걷는다. 섬과 섬을 연결하는 노두가 밀물 때 잠기기 때문에 방문 전에 조석예보를 꼭 확인해야 한다.

라마 '풀하우스'를 찍은 수기해변이 필수방문코스다. 신도의 구봉산(178m)은 산길이 완만해 트레킹하기 적당하다.

●예배당 12곳 순례자의 길, 신안 기점·소악도

신안군 기점·소악도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유래한 '섬티아고'란 별칭이 붙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 스페인의 건축 미술가들이 이곳에 예술의 12제자를 모티브로 12곳의 작은 예배당을 지었다. 대기점도와 소기점도, 소악도, 진섬, 탄섬까지 이어지는 '순례자의

●바다를 무대 삼은 조각공원, 인천 신시모도

인천 용진군 신시모도는 신도와 시도, 모도가 다리로 연결된 곳이다. 이곳에는 조각가 이일호의 초현실주의 작품 80여 점을 전시하는 배미꾸미 조각공원이 있다. 작품이 바닷가에 있어 파도와 물때에 따라 각기 다른 감성으로 다가온다. 모도는 바닷가에 'Modo'라고 쓰인 빨간색 조형물이 사진 명소다. 시도에는 드

●섬 전체가 정원, 보령 죽도 상화원
충남 보령 죽도는 한국식 정원 상화원이 유명하다. 자연을 보존하면서 섬 전체를 정원으로 꾸몄다. 섬 돌레에 조성한 2km의 지붕있는 회랑을 따라 걸으면 서 해송과 죽림, 바다의 수려한 경관과 회화, 조형물 등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석양정원, 해변독서실, 명상관 등의 시설이 있다. 4~11월 금·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만 개방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날씨와 생활

18일(수)

서울	60/60	인천	60/70	수원	60/60
15	20	15	19	13	20
춘천	80/80	강릉	30/70	청주	60/60
11	18	16	23	14	22
대전	20/60	전주	20/60	광주	20/60
13	22	15	23	16	22
대구	30/60	울산	30/60	부산	30/60
13	21	14	22	16	23
창원	30/60	제주	60/6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14	21	18	25	최저	최고
				최저온도	최고온도

☀ 해돋이 07:15 해질 17:19 🌙 달돋음 10:29 달질 20:04

산 날씨

북한산	14/21	내장산	15/23
설악산	15/22	무등산	13/22
오대산	12/19	주왕산	9/21
속리산	10/21	지리산	13/21
계룡산	11/22	한라산	19/22

바다 날씨

인천중도	15/19	안면도 꽃지	14/22
제주도	14/21	변산반도	15/23
경포대	16/23	거문도	12/20
속초	14/21	해운대	16/23
대전	13/21	제주도	18/25

미세먼지

서울	42	보통	대전	39	보통
부산	36	보통	경기	49	보통
대구	57	보통	강원	44	보통
인천	38	보통	전북	54	보통
광주	40	보통	제주	11	좋음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457호

발행인	이인철	편집인	이승훈	편집국장	연재호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경제산업부장	영형호
사건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			

소노벨 청송 “따뜻한 온천+보양식으로 힐링”

과수원 탐험 '사과나무' 패키지 운영

소노호텔&리조트의 소노벨 청송이 온천과 보양식도락이 결합된 힐링 아이템을 내놓았다. '숲속의 개인 정원' 테마의 노천탕(사진)에서는 야외서 이국적인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소노벨청송이 사용하는 솔샘온천은

주왕산 지하 800~870m 암반에서 28.3~30.9도의 온천수를 하루 570톤 용출하고 있다. 온천에 이어 맛보는 달기약수 닭백숙은 3대 약수 중 하나로 꼽히는 청송 달기약수로 끓여 잡내가 없고 소화기 잘되는 보양식이다. 소노벨 청송은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 '사과나무의 비밀'도 운영하고 있다. 객실과 '사과나무의 비밀' 프로그램 패키지는



12월 17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패키지 구매 시 솔샘온천(4인) 30% 할인권, 식음료 할인권을 제공한다. 김재범 기자

하나은행, 시니어 전용 정기예금 출시

하나은행이 시니어 전용 '연제나 청춘 정기예금'을 내놓았다. 만 60세 이상 개인이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0만 원까지 가입가능하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기본금리 연 0.9%에 하나은행으로 공적연금 이체 시 연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무료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 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시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정정욱 기자

11월 18일(수) 음력: 10월 4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가시밭길.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파도.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힘찬 하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여명.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무지개.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오늘의 마음: 인생무상.
사리사욕을 떠나 정의를 관철해 갈 것, 또한 자기 기반을 굳게 닦고 실행할 것. 가급적 폭력은 피하라.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쉽다. 오늘은 반안일이다. 반안은 말안장을 뜻한다. 잔금이나 높은 자리를 의미하며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것이다. 그러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첫 인상에서 좋게 느껴진 것은 성공할 것이다. 오늘의 기운은 인간의 감각이 발동하는 날이므로 연애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오늘은 화개살 일이다. 화개가 화개를 만났다. 육체적으로는 활동성이 위축되는 날이나 정신적으로는 활발하다. 잠재적 자아와 대화하며 이상을 꿈꾼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로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오늘은 천살일이다. 천살은 모든 일이 행성되기 이전의 단계이다. 혼돈의 시기이다. 전환기와 같다. 천살은 순수하고, 깨끗하며, 조용한 상태다.	과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서류로 인한 주위의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가 초래되며, 정신적 불안감 또한 조성되므로 명예나 이익의 추구보다는 이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오늘은 월살이다. 어두운 밤길에 달빛이 나타난 격이다. 금전의 융통이나 어려움의 해결은 용띠에게 부탁하라. 열심히 움직여야 하는 날이다.	앞으로 운이 좋아지는 때이나 모든 일에 지나치게 쉬우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 할 때는 충분히 앞날을 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급속히 성하고 곧 쇠하는 경향이 있어 시기를 보는 바가 민감해야 한다. 오늘은 반안일이다. 노력과 정성과 운의 결실을 의미한다. 여유를 가지고 조용히 물러서서 노련하게 실속을 차린다는 뜻도 된다.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므로 미련 있는 일이라도 과감하게 손을 떼는 것이 나중에 손해가 적다. 무슨 일이든 앞장서지 말라. 욕심을 부리면 큰 재난이 온다. 오늘은 화개살 일이다. 화개는 종교요, 외로움이며, 예술이다. 한 분야에 몰입하여 타의 시선이나 관심에 개의치 않는 것이 특징이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오늘의 마음: 평화롭다.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갈등.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싸늘.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패정.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자유 추구.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여우비.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 성취되겠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오늘은 천살일이며 말띠에게는 식신이다. 천살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는 천재지변에 해당한다. 우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하라.	샘물의 배는 물이 차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시기가 올 때까지는 체념하고 기다려야 할 때이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은 월살일이며 양띠에게는 비경이다. 재물이나 명예에 손상이 가기 쉬운 날이다. 오늘은 짐수리나 이사도 안 되고 혼인 등 좋은 일은 피하라.	산기슭에 연못이 있고, 그 연못을 낮춤으로써 산은 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손해를 보면서도 연못,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여 눈앞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먼 미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반안일이다. 반안은 말안장을 뜻한다. 잔금이나 높은 자리를 의미하며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것이다.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화개이다. 화개는 종교요, 외로움이며, 예술이다. 한 분야에 몰입하여 타의 시선이나 관심에 개의치 않는 것이 특징이다.	운기가 쇠해 시류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재빨리 물러나는 것이 최상의 방도다. 무리하게 나가려 하지 말고 쇠운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한다.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오늘은 천살일이다. 천살이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는 천재지변을 의미한다. 오늘은 관재수를 조심해야 한다. 돼지 시 서남방으로 머리를 향하라.	지금은 얼마든지 일을 맡아도 손조름해 해 나갈 수 있다. 일하면 할수록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보상을 받을 것이다. 고통을 받은 사람도 이제부터는 상생선에 있다. 자신 있게 나아가라. 오늘은 월살일이다. 월살이란 모든 일의 침체, 장벽, 좌절의 뜻을 가지고 있다. 매사 모든 일이 될 듯 될 듯 안 된다. 돼지가 소를 만나니 추진력이 대단하다.